

# “AI는 인류멸종 수준의 위협”...美 보고서의 섬뜩한 경고

### 국무부 의뢰로 AI 최고경영진 등 200여명 인터뷰해 작성 AI로 인한 재앙적 국가안보 위협 경고...“정부 개입해야”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AI)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에서 나왔다. AI 정책 조언 등을 제공하는 민간 업체 글래드스톤 AI가 미국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는 가장 발전한 AI 시스템이 최악의 경우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CNN 방송은 12일(현지시간)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빠르게 진화하

는 AI로 인한 재앙적인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경고”라고 짚었다. 또 보고서에 미국 연방 정부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도 담겼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주요 AI 기업의 최고 경영진, 사이버 보안 연구원, 대량살상무기 전문가, 국가 안보 정부 당국자 등을 1년여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인터뷰한 인원은 200명이 넘는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위협을 꼽았다. 우선 가장 발전한 AI 시스템이 무기화돼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쟁 압박으로 인해 기업들이 안전과 보안을 희생하면서까지 AI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무기화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개발 중인 AI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잠재적으로 세계 안보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별적인 우려들도 AI 연구실 내에 존재했다. 보고서는 “AI와 AGI(범용인공지능)의 부상은 핵무기 도입을 연상시키

는 방식으로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AI 군비 경쟁과 분쟁, 대량살상무기 규모의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로운 AI 감독 기관과 긴급 규제 안전장치를 만들고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분명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글래드스톤 공동 설립자인 제러미 헤리스는 CNN에 “AI는 이미 경제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하지만 또한 우

리가 알아야 할, 재앙적인 위협을 포함한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AI 회의들에서 발표된 경험적 연구와 분석을 포함해 일어나는 증거들은 특정 능력의 한계점을 넘어서면 AI가 잠재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 유명한 AI 연구소의 한 직원은 특정 차세대 AI 모델이 오픈 액세스로 나온다면 끔찍하게 나쁠 것이라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며 “이 모델의 잠재적인 설득 능력이 선거 개입이나 유권자 조작 같은 분야에 사용될 경우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 때

보고서에 따르면 AI 전문가들은 올해 AI로 인한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4%에서 최대 20%까지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 같은 추정치는 비공식적이며 상당히 편향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AGI의 진화 속도를 가장 큰 관건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AGI는 통제력 상실을 인

# 라마단에도 유혈 충돌...팔레스타인 소년 총격 사망

### 멀어지는 가자 휴전 기대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이 시작될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동 예루살렘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 12살 팔레스타인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경 경찰은 이날 동예루살렘 슈아파트 난민촌에서 주민과 경찰이 충돌했고 진압 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밤 벌어진 폭력적 소요에서 국경 경찰은 그들 쪽으로 불꽃을 쏘아대 위협을 초래한 용의자 쪽으로 한 발의 총탄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꽃을 쏘던 팔레스타인 12세 소년 라미 람단 알-할릴리가 총에 맞은 뒤 체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라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라마단이 전날 시작된 이후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측의 총격에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슈아파트 난민촌은 이스라엘에 점령된 동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관할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가르는 분리 장벽에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국경 경찰이 배치돼 있던 상황이었다.



금식 기도하는 무슬림들 세계 곳곳의 이슬람 교도들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됐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유혈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무슬림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

이스라엘 측은 라마단 시작에 맞춰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들이 밀집해 있는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도 경찰 수백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이러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본거지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이 라마단 이전 6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에 대한 합의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중재했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로부터 생존한 인질과 석방 대상자 명단을 받지 못했으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협상에 대 표단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미국과 주변국들은 라마

단 기간 중이라도 휴전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계속하며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 중이지만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슬프게도 현재로서는 어떤 시간표도 내놓을 수가 없다. 현재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우리는 합의에 근접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교도소가 팍 차서”...영국, 수감자 조기 석방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를 가장 두 달까지 조기 석방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12일(현지시간) 현지매체에 따르면 알렉스 초크 법무 장관은 전날 낸 성명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 “특정 하급 범죄자들”을 형기 만료 최대 30일 전에 석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기 석방은 형기 만료 60일 전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초크 장관은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내 수감자 수는 8만8천220명이다. 수용 가능 인원 8만9천명도 못 미치지만, 당국이 적정 수준으로 보는 7만9천500명은 이미 넘어서었다. 또한 내년 3월에는 9만4천4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일부 수감자를 가장 18일 빨리 출소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 보다 확대됐다. /연합뉴스

# 석기시대 인류도 ‘피어싱’...튀르키예에서 유물 발굴

과거 석기시대 인류가 얼굴 피부를 뚫어 장신구를 착용하는 이른바 ‘피어싱’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이 튀르키예에서 발견됐다.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 등 소속 연구진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의 고고학 저널 ‘엔티쿼티’ 최신 호에 이런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튀르키예 남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에 1만2천년 전 형성된 ‘본주클루 타를라’ 신석기 유적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매장지에서 발견된 시신의 귀와 입 근처에서 피어싱용 장신구 총 85점 발견됐다. 장신구들은 석회암, 흑요석, 구리 등 재료로 만들어졌다. 모양도 원형, 직사각형 등 다양했다. 일부 시신의 아래쪽 앞니는 아랫입



1만1천년 전 석기시대 ‘피어싱’ 유물. 술에 끼는 장식을 착용했을 때 생기는 치아 마모와 유사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귀의 살 부분이나 연골에 꽂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피어싱 유물이 해당 신체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전기원제 고사

시 제 상

제 사 상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자매회사: 국제외식산업(주) 출장부패